

職業能力開發研究
第7卷(2), 2004. 12, pp. 103~129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총체적 학습사회론 -

김 장 호**

오늘날 고도로 네트워크화 된 사회에서 개인, 조직 및 사회 제 차원에 걸쳐 새로운 학습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이는 학습사회 개념에 대한 재조명을 요청하고 있다. '총체적 학습사회'란 기존의 학습사회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한계를 극복하려는 개념적 시도이다.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은 탈산업화, 정보화, 유연생산방식, 지식기반경제, 네트워크조직, 협동적 노사관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한다.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은 수요자가 주도하고 국가와 민간이 협치(cooperative governance)하며, 분권화, 지방화, 능력중심의 인증제, 현장학습, 계속 교육훈련과 평생학습,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방식, 지식노동능력, 혁신능력의 배양을 그 특징으로 한다. 총체적 학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은 물론 기업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과 정부 차원에서의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주제어: 학습사회, 총체적 학습사회, 인적자원개발, 사회경제 패러다임

투고일: 2004년 11월 29일, 심사일: 12월 7일, 심사완료일: 12월 15일

* 본 논문은 2002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비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음. 필자는 본 논문 작성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홍근 박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I. 서론

21세기는 학습의 시대이다.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개인, 조직, 사회는 번성하는 반면 그렇지 아니한 주체들은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오늘날 학습은 국가와 개인 발전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존재 조건이 되고 있다.

일찍이 Hutchins(1968)는 현대 사회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학습사회'라는 개념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후의 사회경제 발전 과정은 그가 탁월한 혜안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Hutchins에 의해 '학습사회' 개념이 제출된 지 한 세대가 흘러갔다. 학습사회 개념은 초기의 소박한 문제의식을 넘어 이후의 많은 연구자들의 논의와 연구를 거치면서 외연이 넓어지고 내용도 풍부해졌다. 하지만, 그간 학습을 둘러싼 환경이나 학습을 바라보는 시각, 학습방식과 방법, 학습의 사회적 위상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네트워크화 된 사회에서의 개인, 조직 및 사회 제 차원에서 진행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학습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사회 개념에 대한 재조명을 요청하고 있다.

'총체적 학습사회'란 기존의 학습사회 개념을 계승하면서도 종래 성인교육, 평생교육, 평생학습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도출된 이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개념적 시도이다. 이 글에서는 '총체적 학습사회'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과 그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본다.

'총체적 학습사회'는 평생학습사회의 연속적 진화 형태로서, 평생학습사회의 속성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이 개념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과 특징을 조명하기 위한 개념도구이다. 총체적 학습사회는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은 탈산업화, 정보화, 유연생산방식, 지식기반경제, 네트워크조직, 협동적 노사관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은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은 수요자가 주도하고 국가와 민간이 협치(cooperative governance)하며, 분권화·지방화, 능력중심의 인증체제, 현장학습, 계속 교육훈련과 평생학습,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방식, 지식노동능력, 혁신능력의 배양을 특

정으로 한다.

총체적 학습사회는 이미 시작된 미래이다. 도처에 맹아들이 뚜렷이 관찰되며 머지않은 장래에 활짝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체적 학습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은 물론 기업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과 정부 차원에서의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학습은 보편성과 특수성, 역사성을 갖는다. 인간은 학습하는 동물(Homo Eruditio)이다. 학습은 인간의 본능이자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 생존의 조건이다. 이는 학습의 보편적 속성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는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 학습의 역사이며 문명은 학습의 산물이다. 보편적 인간조건으로서의 학습은 또한 사회, 조직, 개인에 따라 그 위상과 양태, 의의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학습의 특수성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습은 사회경제적 관계, 과학기술과 문화 등 역사 발전과 더불어 목적과 기능이 달라져 왔다. 학습은 역사적 산물로서 사회변동과 더불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학습 또는 교육의 위상과 성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적지 않게 변화해 왔다. 근대 이전까지 정규 교육은 소수 귀족계급의 전유물로서 기본적으로 지배 또는 통치술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다시 말해 교육은 신분적 특권의 일종이었다. 평민과 노예 계급은 비공식, 비형식적 학습과 교육을 통해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여 왔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교육은 귀족계급을 넘어 점차 보편화되었고, 부르주아 및 노동자 계급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른바 근대적 보통교육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교육학습의 보편화 과정은 한편으로 근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발전과, 다른 한편으로 근대 산업사회의 생산력 발전 및 대량생산체제의 발전과정과 조응한 것이었다.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적 노동력 재생산의 중요한 기제이자 계급적 질서의 사회적 재생산 메커니즘으로 기능하였다. 하버마스식의 논법에 따르면 과학 및 학문 영역에서의 교육학습은 도구적 이성의 계발의 수단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¹⁾

오늘날 근대적 교육학습체제가 약화되면서 탈근대를 지향하는 다양한 지향들이 분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교육, 학령기교육, 제도교육의 틀을 넘어, 성인교육, 평생교육, 사회교육, 비공식적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형식지와 더불어 暗黙知, 경험적 지

1) 근대보통교육체제는 양면성을 지닌 모순적 체제였다. 근대보통교육체제는 한편에서 근대 자본주의와 대중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의 예와 같이 파시즘의 대중적 기초를 다지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식과 숙련의 의미가 재발견되었다. 이러한 변화 역시 사회경제시스템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평생학습 및 학습사회가 강조된 배경에는 급속한 과학기술혁신과 사회변동 하에서 학교교육, 제도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시민사회,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숙련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해방적 이성의 계발을 지향하는 비판적 교육학습이론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탈근대성으로 요약되는 현대사회에서 학습(교육)의 의미는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다양한 용어들로 지칭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Bell, D., 1973), 후기 자본주의사회(Drucker, P. 1993), 후기 근대 혹은 탈근대사회(late or post modern society), 지식기반사회²⁾, 정보화사회(Toffler, A. 1980; Drucker, P., 2002), 학습사회(Hutchins etc, 1968), 네트워크사회(Castells, M., 2000) 등의 개념은 현대 사회를 이론적으로 전유하려는 다양한 개념적 도구들이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탈이념 혹은 이데올로기의 종언(Bell, D.), 제3의 물결(Toffler, A), 정보혁명(Drucker, 2002), 디지털혁명, 탈근대성(post modernity), 자본주의적 세계화, 노동의 위기 혹은 종언(Rifkin. J., 1994), 신경제(Drucker, 2002), 지식노동, 네트워크³⁾ 등은 탈근대의 현대사회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개념들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근대적 교육학습체계의 모순과 한계⁴⁾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면서 새로운 학습(교육) 패러다임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 오고 있다(성인교육, 평생학습, 학습사회론 등). Ratt, Edwards, and Small(1966)에 따르면 학습사회 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후기근대사회론에 기초하여 이 개념을 논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Marsick et al., 2000:35).

이 논문은 학습사회론의 연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총체적 학습사회 개념의 학술적, 실

2) 지식기반사회란“생산요소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개인, 기업, 국가의 경쟁력 우위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정진화 외, 1999:9)이다.

3) 네트워크란“사회 구조 속에서 상호 연계된 노드들의 집합”으로 일반적으로“노드(node)와 링크(link)로 구성된 추상적인 연계구조”를 의미. 네트워크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개 노드들 사이의 링크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의미한다.

4) 근대적 학습(교육)체계의 모순과 한계들로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분리, 일방향성, 주입식 피동적 교육과정에서 배태된 교육소외, 특정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학습의 왜곡, 이원적 교육체제(소수의 엘리트 교육과 근대적 대량생산방식 논리의 연장에 선 보통교육의 이원성), 교육의 외면적 측면(형식교육, 공식교육)에의 집착으로 인한 인간 내면적 학습동기화 실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천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 총체적 학습사회의 이론구성을 위한 개념들을 시론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 학습사회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총체적 학습사회와 관련된 개념과 이론의 전개과정(평생학습, 학습사회)을 살펴본 다음 총체적 학습사회의 개념과 특징을 고찰하고, 둘째, 총체적 학습사회 개념의 등장 배경으로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찰하며 셋째, 총체적 학습사회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전환과 인적자원개발 전략 및 주체별 과제를 탐색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학습사회 개념의 진화

1. ‘평생학습’ 개념의 발전

평생학습 개념의 뿌리는 성인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린드먼(Eduard Lindman)의 고전적 저작인 『성인교육의 의미』(The Meaning of Adult Education, 1926)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⁵⁾, 이후 평생교육, 평생학습 등으로 개념적 진화를 해 왔다.

평생학습은 한마디로 개인의 생애 모든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규비정규의 모든 교육 및 학습활동을 지칭한다. 오늘날 평생학습은 UNESCO와 OECD 등 국제기구의 활동에 힘입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학습 원리로 자리잡았으며, 대다수의 선진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 및 사회경제발전의 핵심전략으로 등장하였다.⁶⁾

평생학습론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과

5) Linderman(1926)은“자기의식적인 성인 교육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인생 전체가 학습이기 때문에 교육은 끝이 있을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Wang, 2003. 재인용).

6) 1996년 1월 OECD 회원국 교육부 장관들은‘전국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현(Making Lifelong Learning a Reality for All)’회의에서“국민, 산업현장,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결집력을 확보해 주는 핵심적인 수단은 유아교육에서부터 퇴직 후의 적극적인 학습에 이르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훈련에 대한 새로운 철학의 정립과 이에 기초한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제도, 전통적·대안적 교육제도, 공공부문·민간부문 교육제도 등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아울러,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교육, 산업체, 계속교육기관간의 이동통로(pathways)의 확대를 역설한다. 또한, 평생학습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과 고용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평생학습론에서는 국가 인력 전반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국민 개개인의 만족스러운 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는 개인적 발전, 강력한 사회 통합의 촉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정태화, 2004:10).

2. ‘학습사회’의 개념과 이론

학습사회 개념은 Hutchins(1968)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그에 따르면 학습사회란 “성인 생활의 모든 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트타임의 성인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학문성취, 인간이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고 모든 기관들이 이 목적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가치관을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사회”이다. 이후 여러 연구자, 기관 등에서 학습사회 개념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조용하(1990)는 학습사회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첫째, 국민 전체에게 학습의 기회가 개방되어 있는 사회, 곧 열린 학습사회(open-learning society)라는 것이다.

둘째, 일정 연령에 학습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학습을 계속하는 평생교육 즉 평생학습사회(lifelong learning society)이다.

셋째, 다양한 학습을 시도하는 사회로서, 학습의 내용은 직업생활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여가생활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다. 즉 학습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방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학습사회에서의 학습은 개방된 학습(open learning)이다.

넷째,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만이 교육을 행하는 교육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학습을 수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사회(self-directed learning society)이다.

이희수 등(2000)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학습사회를 정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학습사회는 “학습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는 사회”, “자신의 학습 진보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평가를 통해 학습의 성패보다는 학습의 진전을 알려주는

사회”, “지식의 획득 못지 않게 잠재 능력, 개인적·공적 가치, 공동 작업을 중시하는 사회”, “학생, 학부모, 교사, 고용주, 지역사회가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 작업의 성과를 개선하는 노력을 학습으로 인정하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학습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회”, “남녀, 장애인, 소외집단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학습을 창의적이고 보상받을 수 있으며 즐거운 활동으로 간주하는 사회”, “학습을 장기적 개방적인 견지에서 다른 문화, 신조, 종족, 전통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사회”, “학습을 개별적, 가족 단위, 지역 사회 나아가 더 큰 집단의 활동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회”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평생학습사회란, “평생학습이 사회구성의 핵심 원리로 되는 사회로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비하여 작동시킴으로써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적 가치에 기초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학습사회론’의 유형과 발전

가. 계몽주의 학습사회론

계몽주의 학습사회론은 Hutchins, Faure, Carnegie 위원회 등의 학습사회에 대한 논의로 대변되며 완전한 인간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문교양교육, 민주시민교육 중심의 학습사회를 지향한다.

여기서는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으로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아실현과 시민의식 성장의 조건 형성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학습사회는 안정된 경제적 성장과 질서를 가정하며, 국가 주도 하에 국민 계몽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의 계획된, 구조화된, 제도화된 교육사회상에 가깝다.

이러한 계몽적 학습사회론은 UNESCO의 평생교육 모형과 유사하며, 사회안정과 경제번영, 평생직장과 안정된 고용구조에 기초해 있지만 매우 규범적이며 사회 내의 힘의 역학 관계를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 시장중심 학습사회론

시장중심 학습사회론은 OECD, EU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현재 지배적인 학습사회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습과 일터의 연계 및 학습의 경제적 적합성, 고용가능성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반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시장중심 학습사회에서는 학습에서의 시장원리, 경제주의, 개인주의가 지배적으로 되며,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은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산업기관, 지식산업기관으로 새롭게 재규정된다. 시장중심 학습사회론이 대두하게 된 데에는 세계화, 전지구적 경쟁, 사회불안정성 증대, 정보화, 소비사회, 고실업 사태의 도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시장중심 학습사회론은 경제 결정론적 시각에 편향되어 있고, 평생 학습에 있어 비경제적 가치의 측면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 시민주도 네트워크 학습사회론

시민주도 네트워크 학습사회론은 오늘날 정보화와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제3세대 학습사회론이다. 평생교육의 이념인 학습의 장과 시간의 통합, 자원의 공유를 통한 효율화, 교육 자원의 연계 활용을 통한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강조한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기관간 연계, 인적 자원의 교류, 시설 자원의 교류, 정보의 교류, 사업 네트워크, 전국적 네트워크 등 교육 자원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학습은 학습자 자신이 다른 학습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자기 학습을 스스로 돕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는 한편, 학습자 자신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 생활에 서로가 도움을 주는 매개체로 활용하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학습은 개인적 활동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학습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내지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가족, 단체, 지역사회, 경제 부문 내에서의 일련의 다른 관계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근래 강순희 외(2002) 등에 의해 제안된 사회 학습망(social learning net) 개념 역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학습사회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사

회학습망이란 복지적 측면과 학습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이 평생에 걸친 삶의 주기(lifelong and lifewide)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일차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이미 그러한 학습기회에서 낙오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활수준 이하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학습기회를 보장하여 적정수준의 학습에 도달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차원의 제도화된 학습장치”이다(강순희 외, 2002:19~20).

4. ‘총체적 학습사회’ 개념과 특징

가. ‘총체적 학습사회’ 용어의 등장

평생학습사회 논의의 연장에서 최근 ‘총체적 학습사회’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 용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업그레이드 플랜(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을 통해 최초로 활자화된⁷⁾ 이후 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자와 매체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총체적 학습사회’ 용어는 김창호(2004), 장창원 외(2003) 및 직능원의 기관지 『직업과 인력개발』 제 7권 1호 특집으로 ‘총체적 학습사회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대주제 아래 편집된 네 편의 논문에서 사용된 바 있다(장영철, 2004; 최돈민, 2004; 김환식, 2004; 박종선, 2004). 강경중 등(2004)은 총체적 학습사회의 핵심적인 수단인 e-learning을 통한 총체적 학습사회의 구현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개념은 형성단계의 개념으로서 아직 대외적으로 널리 사용되거나 학계에서 수용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개념의 정체성과 타당성, 특히 학습사회 개념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를 안고 있다.⁸⁾

7) ‘총체적 학습사회’ 용어는 종래 ‘(평생)학습사회’ 개념이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그 속에서 변화된 학습의 위상과 목적, 방식, 기법 등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8) ‘총체적 학습사회’ 개념화에 대해 활자화된 명시적인 비판은 아직 없지만, 그간의 각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의 요지는 첫째, 기존의 학습사회 개념과 차별성이 없으며 둘째, 학술적 개념으로서의 체계와 요건(개념의 구성 요소, 요소간 관계, 개념의 유용성과 의의 등)이 아직 불명료하다는 점 등이다. 또한 이 개념의 등장 배경과 관련하여 현실에 대한 진지한 학술적 고민과 연구 결과로 도출된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수사학적인 용어(rhetoric)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나. '총체적 학습사회' 개념 구상

총체적 학습사회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담보하는 선진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모든 개인과 조직이 보다 학습 지향적으로 전환되는 사회로서, 수평적으로는 개인, 조직, 사회의 모든 조직이 학습조직화되고 상호 학습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수직적으로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생에 걸친 학습체제가 마련되는 사회”로 개념화 될 수 있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는 평생학습체제, 조직 차원에서는 학습조직화, 개인 조직간 차원에서는 학습네트워크가 구축된 사회로서, 사회 전반의 학습역량이 제고된 사회이자 일과 학습의 순환과 병행이 가능한 사회이다(김장호, 2004:5).

총체적 학습사회 개념은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일생주기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평생 학습사회 개념보다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총체적 학습사회의 구축은 총량적 수준에서 고용 기회가 부족해지고 노동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여러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생산 기반의 확대재생산을 수반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삶의 구조를 학습주기와 노동주기로 교차 편성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학습과 교육 자체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여 총수요를 확대하는 사회 전체의 선순환을 조장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의 안정적인 구축이 가능하게 하는 바탕을 제공할 수도 있다.

나아가 작업장 내에서의 학습조직화는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지식집약적인 상품생산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노동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총체적 학습사회의 구현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21세기 인본주의 경영이념과 노동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토대가 된다.

총체적 학습사회는 평생학습사회의 연속적 진화 형태로서 이 두 개념은 상호배제적인 개념이 아니다. 총체적 학습사회란 평생학습사회의 주요한 속성들을 공유하면서, 평생학습사회 개념으로는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과 특성⁹⁾을 부각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이다.

9) 예컨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가능하게 된 사이버 공간을 통한 무한한 학습 네트워크와 익명의 집단적 지식창출 및 학습과정, 이는 종래의 교육 또는 학습 형식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학습 관련 주체들간 쌍방향적인 상호의존성의 증

다. 총체적 학습사회의 특징

총체적 학습사회의 주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총체적 학습사회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복지체계가 구축된 사회이다. 학습권이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됨으로써 문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학습과정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학습복지사회(learnfare society)가 바로 총체적 학습사회이다.

둘째, 종래의 사회에서와는 달리 새로운 학습 주체가 탄생하는 사회이다. 총체적 학습사회 내에서 사회 내의 구성원은 동시에 또는 시계열적으로 능동적 학습자이자 보조자, 촉진자로서의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습주체이다.

셋째, 학습 목표와 방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숙련이나 사실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숙달이 전통적인 교육훈련과 학습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총체적 학습사회에서의 학습 목표는 방법에 대한 지식(know-how) 또는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learning how to learn)에 두어진다.

넷째, 조직 차원 학습의 중요성이 증대한다. 총체적 학습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개인학습 이상으로 조직 차원 학습의 중요성과 의미가 커진다. 조직 자체가 학습 단위로 재규정되고 조직의 성과가 조직 학습 성과에 따라 좌우된다. 여기서 조직은 기업, 비영리조직, 정부조직, 지방정부조직, 비정부조직 등을 포괄한다.

다섯째, 정보·지식의 폭증이다. 미래학자들에 따르면 2020년경이 되면 73일을 주기로 지식이 2배로 증가하고, 2050년이 되면 현재 인류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은 1% 정도만 유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인호, 1998; 정태화, 2004:1)하고 있다. 총체적 학습사회에서 이러한 정보지식 폭증 현상은 더욱 가속화한다.

여섯째, 유비쿼터스 학습환경(Ubiquitous Learning Environment)이 조성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시간, 공간, 도구의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에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는 보편적 학습 조건이 형성된다.

대, 교육학습 주체들간 역학관계의 변화(공급자=교육기관 우위에서 소비자=기업 우위관계로), 아울러 교육학습에서 기업의 성격 변화(소비 주체에서 생산소비자로), 학교-노동시장 이행(STW transition)의 문제를 넘어, 그와 더불어 일터-학교 이행(WTS transition)의 순환적 교육학습체제의 확장 등을 들 수 있다.

일곱째, 다양한 형식의 학습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총체적 학습사회에서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네트워크 형식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 사이에 지식과 정보를 쌍방향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필요한 지식정보를 획득하고 나누는 학습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덟째, 지식정보 가치의 분화이다. 한편에서는 지식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copyright(지적재산소유권) 시스템이 강화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식정보의 무차별적인 공유를 지향하는 copyleft(지적자산공유) 운동이 진행된다.

아홉째, 정보지식관리시스템(KMS)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정보와 지식을 수집, 가공, 생성, 해석, 연결, 공유, 축적,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정보지식관리시스템이 보편화되고 학습의 정보인프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총체적 학습사회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을 비롯한 각종 조직이 학습조직으로 전화되어 구성원의 지식과 기술 숙련 등 인적자본이 핵심적인 조직경쟁력이 되며,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개인과 조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사회 제 영역이 학습을 매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네트워크 사회이다.

라. 학습사회론의 계기적 발전

앞에서 우리는 평생학습의 개념과 이를 둘러싸고 전개되어온 학습사회론의 전개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총체적 학습사회의 개념과 필요성 및 그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학습사회론의 주요한 유형으로 파악한 계몽적 학습사회론, 시장중심학습사회론, 시민주도 네트워크 학습사회론, 그리고 우리의 총체적 학습사회론을, 주창자(또는 기관), 주 대상, 학습목표, 배경 및 조건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학습사회론의 계기적 발전과 내용

구분	계몽주의 학습사회론	시장중심 학습사회론	시민주도 네트워크 학습사회론	총체적 학습사회론
주창자(기관)	Hutchins, Fraure, UNESCO 등	World Bank, OECD, EU	이희수 등	김장호 등
주 대상	학교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근로자	시민	사회구성원 전체
학습목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의 시민의식 성장 조건 형성	개인의 고용가능성 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	사회적 학습망의 형성을 통한 학습과 여타 사회생활의 연관성 제고	학습인, 학습조직, 학습사회 구현을 통한 공공선의 극대화
배경 혹은 조건	사회안정과 경제적 번영 안정된 고용구조	세계화, 경쟁격화, 사회불안정성, 고실업	정보화, 세계화	후기자본주의 고도정보화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III.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총체적 학습사회

1.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기술도대의 발전과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희소자원의 성격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각 나라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왔다. 그러나 그것의 성격이나 특징은 일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어 향후의 경향을 조망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생산 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방식의 변화 추이는 기업의 본질(identity) 또는 기업상(像)에 대한 기본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해왔다. 이제 20세기까지 노동편성 원리의 변화를 고전적인 경쟁자본주의와 독점경영자본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화 초기, 즉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말에 해당되는 이른바 고전적인 경쟁적 자본주의시대의 생산방식은 수공업적인 주문생산방식이 지배적이었다. 그 당시 노동은 풍부 한 반면 자본은 부족하였으므로 기업의 성패는 자본동원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희소재인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가 기업을 지배하게 되고 자본 중심의 기업관, 즉 소유주의 기업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이때에는 자본 소유자인 개인이나 그 가족이 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지배하는 개인자본주의 또는 가족자본주의 형태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므로 경영이념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주 주권이 중심이었다.

소유주의가 중심이었던 산업화 초기의 기업에서는 노동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노동상품관이 팽배하였다. 또한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만 이해하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수단으로써만 간주되었다. 따라서 기업활동에서 자본은 본질적이고 고정적인 요소인 반면에 노동은 비록 숙련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어도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가변요소로 간주되었다. 이때의 노사관계는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계급 갈등관계(class conflict relations)로 간주되었으며, 노동운동이념도 노동자계급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타파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조합주의가 풍미하였다.

선진국을 기준으로 볼 때 20세기의 자본주의는 대량생산방식과 관리중심의 기업패러다임이 지배한 경영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20세기에 이루어진 기술혁신과 시장여건의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교통·통신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대량수송체계가 확립되며 시장의 광역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생산공정에 있어 기계화·자동화 기술혁신의 확산은 표준적이고 규격화된 상품의 경우 대규모 생산체제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거대기업이 등장하게 되고 거대자본의 동원이 요구되었다. 거대자본의 필요는 수많은 새로운 소액주주들을 등장시켜 기업설립자의 주식소유 비중은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소유분산 현상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점차 분리시켰으며, 특히 거대기업의 운영과 관리는 전문경영인들의 지배로 바뀌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성패는 자본동원능력이 아니라 거대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능력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희소재는 자본이 아니라 우수한 전문경영능력이었다.

과학적인 관리방식의 도입을 통한 대량생산방식의 발전은 일선 근로자들의 반숙련화를 초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혁명이 실현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대폭 증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을 가져왔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노사관계도 산업화 초반의 계급갈등관계에서 점차 대등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대립관계(interest accommodating relations)로 변화되었으며 노동이념도 경제주의가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체제하에서도 이제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복지실현은 제도적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능하고 그뿐만 아니라 바람

직하다는 인식까지 확산되었다.

일반적으로 공업화 초기의 자본중심 기업관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운동을 적대적이고 비우호적으로 간주하는 반조합주의정서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운동에 대한 반조합주의적인 태도만으로는 효율적 생산과 합리적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기업도 인지하게 되고, 이후 노무관리와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을 시도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도 노사문제에 대한 공정한 룰(rules)을 설정하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사관계의 기본 기조는 경제주의로 변모되었고 단체교섭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해소시켜 나가는 관행의 정착을 가져왔다.

<표 2> 자본주의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구분	독점경영자본주의	탈자본주의·고도정보화사회
생산방식	대량생산방식	유연생산방식
산업화단계와 인프라	산업화 철도망	탈산업화, 정보화 인터넷망
경영패러다임	경영주의, 경영자 주권 (managerial prerogative)	인본주의 종업원 주권
기업지배구조	거대기업 소유와 경영의 분리	중견기업 소유와 지배의 분리
노동시장	기업내부 노동시장 반숙련노동자 중심 직종간 분리 노동력 관리 중시	내외부 노동시장간의 단절 지식노동자 중심 생산직 사무직 분리 축소
작업조직 및 관리이념	위계적 피라미드 조직 테일러주의적 과학적 관리 관료제적 관리	네트워크 조직 정보지식과 숙련의 조직능력 참여적 관리
노동운동이념	경제주의	협의주의
노사관계	대결적 노사관계	협동적 노사관계

출처: 김장호(2004). p.3.

2. 한국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현재 한국 경제사회는 총체적 전환기에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발전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경제사회는 1960년대 이래 1990년대 초까지 重厚長大型 산업 중심의 국가주도 수출지향 경제성장정책(state-driven export-oriented economic growth strategy)에 따라, 자본노동 투입, 기술모방, 중저가제품의 양산형 생산시스템, 권위주의적 노동통제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제사회 발전패러다임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당시의 국내의 환경과 조응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사상 유례없는 고도경제성장을 시현하였고, 그 결과 한국은 1960년대 초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에서 오늘날에는 선진국 진입에 가장 근접해 있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종래의 발전 모델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사회적 신뢰의 결핍과 집단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저임금-저숙련-저생산성의 저숙련 균형의 함정(Low Skill Equilibrium Trap)에 빠져 있었다. 저숙련 균형체제 하에서 인적자원개발은 대량생산에 필요한 숙련·반숙련 기능인력의 대량 양성 및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노동시장은 전형적인 분절 노동시장(Divided Labour Market)으로서 한편에서는 고임금과 고용안정성을 향유하는 핵심노동자층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정고용상태의 광범위한 주변부 노동자층으로 분절되어 있었다. 최근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산업화 시대 한국형 발전모델은 선진국 모방형 발전 전략으로서 선진국 따라잡기(catch up)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추월은 불가능한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였다. 동시에 가치 면에서는 인간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에 매몰되어버렸고, 분배보다는 성장, 정당성보다는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데 실패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나라는 국민소득 1만불 달성과 OECD 가입 등으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듯 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와 뒤이은 IMF관리체제 편입으로 좌절되었고, 이후 8년여 동안 魔의 1만불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전반적으로도 역동성이 오히려 약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소득 1만불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의 틀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종래의 모방형 경제사회발전 패러다임을 혁신주도형 경제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논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혁신은 자본과 노동의 양적 투입 증대방식이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에서 부가가치생산의 주역인 사람(인적 자원)의 지식과 기술 등 인적자본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위해 산업구조를 고부가치의 신성장 동력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도하게 분절되고 파편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여 유연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극심한 고용불안정의 폐해를 지양하는 유연적 안정성(Flexicurity)이 담보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 기능인력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시스템을 지식근로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사관계 역시 상호불신과 대립의 소모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생산적인 노사관계로 혁신되어야 한다.

요컨대,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사람(인적자원)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형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성장과 분배, 효율성과 정당성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을 지식기반경제에 걸맞게 혁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총체적 학습사회의 틀 내에서 가능하다.

<표 3> 한국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

구분	구패러다임	뉴패러다임
사회문화	저신뢰사회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고신뢰사회 디지털 통합(Digital Integration)
산업구조	저부가가치의 대량생산에 기초한 중후장대형의 전통적 산업 중심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 중심으로의 전환
노동시장	전형적인 분절 노동시장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확보
인적자원	저숙련 기능인력	지식근로자
노사관계	대립적 노사관계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출처: 김장호(2004). p.4.

3. 총체적 학습사회에서의 교육과 학습

총체적 학습사회에서 교육과 학습은 종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과 구조를 띠게 된다. 무엇보다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개인, 조직, 사회의 모든 면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습수요가 폭증하고 학습수요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전통적인 교육학습방식에 의한 기존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과 학습을 넘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학습이 활성화된다.

또한 학교에서의 교육은 물론 개인의 전생애에 걸친 학습이 보편화 되면서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지식과 숙련을 적시에 체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 학습권이 일종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정규학교 교육은 물론 공식교육 종료 이후라 할지라도 누구나 직업생활의 원활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학습인프라가 구축된다.

총체적 학습사회에서는 교육학습 차원의 복합 현상이 일어난다. 개인 차원에서의 개인 학습은 물론이고 집단적으로 진행되는 집단학습, 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조직학습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학습 차원의 융합 현상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공식적인 교육학습과 비공식적인 교육학습의 융합 및 복합현상도 더욱 심화된다.

총체적 학습사회에서는 한편으로 지식정보가 가치생산의 핵심적인 원천이 되면서 그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지식정보의 공공재적 성격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교육 및 학습의 목적에 있어서도 경제적 목적과 비경제적 목적의 혼용 현상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IV.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인적자원개발 개념의 확장

인적자원이란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요소로서의 지식과 숙련의 축적(stock)”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게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된다. 이런 맥락에서 인적자원은 “국가의 경쟁력, 조직의 생산성과 개인의 평생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력, 행동양식 및 문화적·윤리적 성숙도 등 개인에 체화되어 있는 제 능력 및 품성”을 의미한다(백성준 외, 2002:7-9).

일반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이란 “인적 자원을 양성·배분 및 활용하여 인적자원의 가치와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서, 이는 개인, 기업, 지역사회, 국가 수준 등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상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는 국가 차원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의에 해당한다.

총체적 학습사회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인간의 지식과 숙련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측면 이외의 다양한 학습동기들 예컨대, 문화·예술·교양·취미·오락 등과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넓은 맥락에서 총체적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학습활동”까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속에 포함한다.

2. 총체적 학습사회의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

총체적 학습사회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은 구래의 그것과 대조적인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

서 진행된다. 종래의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이 공급자(교육훈련기관)가 주도하는 국가 중심의 체제였다고 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수요자인 기업이 주도하고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가 새로운 주체로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의 제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띠게 된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각종 법적, 제도적 권한 역시 과거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중앙에 집중된 집권화 체제였던 데 반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분권화, 지방화 체제로 변화된다. 이를 통해 중앙집중적 인적자원개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인적자원개발의 지배구조(governance) 역시 과거에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국가로 일체화되었던 데 반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정책 수립은 국가가 책임지고 하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학습결과에 대한 인증체제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과거에는 학교 졸업장과 같은 경직적인 학제 중심의 인증체제가 중심이었던 데 반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능력 중심의 인증체제가 중심이 된다. 평생학습체계에 부응하여 공식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인증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교육훈련, 경험학습에 대한 인증이 활성화된다.

학습의 초점 역시 과거에는 제도적인 교육훈련에 두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현장 학습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게 된다. 학습기간 면에서도 과거와 달리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평생학습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학습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공급자, 교사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강조되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방식이 점차 지배적인 패턴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의 인적자원개발이 대체로 단순지식 기능의 숙달을 통한 단순기능의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다기능, 지식노동능력, 혁신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약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구 패러다임	신 패러다임
주도자	공급자(교육훈련기관)	수요자(기업)
국가-민간관계	국가 중심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
권한	권한의 중앙집중(집권화)	분권화, 지방화
지배구조	정책과 집행의 일원화	정책수립은 국가, 집행은 민간이 담당
인증체제	학제중심(time-based) 인증체제	능력중심 인증체제(경험학습의 인증)
학습초점	제도적 교육훈련	현장 학습
학습기간	1회적 학습	계속적 교육훈련과 평생학습
학습방식	공급자교사 중심	학습자 중심(자기 주도적 학습)
목표	단순기능	다기능, 지식노동능력

3. 총체적 학습사회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가. 사회 차원의 학습마인드와 학습문화의 형성

총체적 학습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개인, 기업, 공공조직, 시민사회, 정부 등 인적자원개발의 주체들로 하여금 총체적 학습사회의 도래와, 그 속에서 학습의 중요성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학습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학습지향적인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과 조직의 가치체계와 행태가 학습 중심으로 지향되는 학습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문화는 지식정보의 수집, 가공, 생성, 유통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고, 학습 협력은 공공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며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확립시켜야 한다.

나. 초점 전환과 인터페이스

복잡성,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학습은 정형화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지식을 만드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적,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초점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학교간 교육과정, 설비, 인력에 있어 긴밀한 인터페이스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사회적 학습인프라의 확충

사회적 학습인프라는 기술인프라, 정보인프라, 재정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기술인프라 측면에서는 급격한 기술진보의 성과를 학습인프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e-Learning과 같이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학습기법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정보인프라 차원에서는 총체적 학습정보망이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정보, 직업정보, 자격정보, 교육훈련정보의 유기적인 연계와 제공을 통해 개별 학습자, 학습조직 등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나아가 학습 콘텐츠에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재정인프라 측면에서는 학습수요자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학습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 기업, 기타 조직 대상별로 다양한 차원에서 정교한 재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된 후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라. 사회구성원의 학습인화

총체적 학습사회에서 개개인은 더 이상 수동적 교육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학습주체로서, 학습목표와 주제를 설정하고 탐색하며 학습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주체로 재규정된다. 또한 학습동아리와 같이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자발적인 상호 학습이 활성화된다. 사회구성원의 학습인화를 위해서는 선도적인 학습 리더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 가정, 학교, 기업의 학습조직화

오늘날 학습은 조직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조직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총체적 학습사회에서 조직은 학습조직으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가정, 학교, 기업 및 기타 공공부문의 모든 조직까지, 구성원들 평생에 걸쳐, 인생의 다양한 장에 걸쳐 네트워크화 된 학습(life-long, life-wide and networked learning)의 기회와 장을 제공하는 학습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바. 총체적 학습사회화

궁극적으로 사회가 총체적 학습사회로 재구조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 기업 및 각종 조직의 능동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 및 사회 차원에서는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학습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여 소기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고, 개인, 조직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야 하며 학습 장애요소들은 제거해야 할 것이다.

사. 사회적 학습파트너십 형성

일반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은 다양한 주체들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과정이다. 이들 주체들간의 이해관계는 때로 일치할 수도 있지만 상충될 수도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의 복합적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총체적 학습사회에서는 사회 전체가 학습을 주요한 축으로 해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만큼 인적자원개발은 관련 파트너들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인적자원개발 사회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적자원개발의 주요한 이해당사자이면서도 파트너십에서 소외되었던 근로자 및 단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전문역량의 배양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아울러 형식적으로 제도화 되어있는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관련 기구들의 정비와 실질적 내실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총체적 학습사회’는 생성 단계의 개념으로서 아직 이론적, 실증적으로 학습사회 개념과 충분히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성인교육, 성인학습, 평생학습으로 이어지는 개념적 사슬의 연장선상에서 30여 년전에 제출된 학습사회 개념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습사회의 이론과 연구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총체적 학습사회 개념은, 특히 네트워크 학습 현상, 사이버공간을 통한 익명의 다수 개인에 의한 집단적 학습과 지식창출, 학습장과 작업장의 융복합 현상, 학습 중요성의 사회전면으로의 대두 등 새로운 현상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총체적 학습사회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은 학습사회론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계승하면서, 경제사회구조와 가치의 변동, 기술혁신 등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적자원 양성과 배분, 활용 방식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총체적 학습사회의 구현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의 학습 마인드와 학습문화가 구축되어야 하며, 비정형적 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의 배양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총체적 학습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학습인으로서, 가정과 학교, 기업 등 각급 조직은 학습조직으로, 사회는 학습사회로 총체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각 층위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파트너들간의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의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총체적 학습사회가 구현될 때 지식노동자의 안정적 공급과 활용,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협력적 노사관계, 유연안정성의 확보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인본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개인과 기업조직,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중 외(2004). 『총체적 학습사회와 e-Learning』,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순희·박성재·장원섭(2002). 『사회학습망 구축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김장호(2004).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과 총체적 학습사회」, 서울대 노동물로키업 발제자료(2004. 3. 31).
- 김환식(2004). 「국가혁신체제와 총체적 학습사회」, 『직업과 인력개발』, 제7권 제1호, 24~31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종선(2004). 「e-Learning을 통한 총체적 학습사회 구현」, 『직업과 인력개발』, 제7권 제1호, 32~39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백성준 외(2001).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희수 외(2000). 『평생학습지원체제 종합 발전방안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장영철(2004). 「총체적 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훈련개발 체계」, 『직업과 인력개발』, 제7권 제1호, 6~16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창원 외(2003). 『2만불시대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책 수립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정진화 외(1999). 『지식기반사회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개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정태화(2004). 「직업능력개발 중심으로의 평생교육제도 개선」, 이슈페이퍼 2004-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용하(1990). 「학습사회의 과제와 전망」, 『학생연구』, 제18집, 25~44쪽,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최돈민(2004). 「평생학습도시와 총체적 학습사회」, 『직업과 인력개발』, 제7권 제1호, 17~23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3). KRIVET 업그레이드 플랜.
- Bell, D.(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 Castells, M.(2000). *The Rise of Network Society*, 김목한·박행웅·오은주 역(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한울아카데미.

- Drucker, P.(1993). *Post-Capitalist Society*, Harper Business.
- _____ (2002).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New York: St. Martin's Press, 이
재규 역(2002). 『Next Society』, 한국경제신문사.
- Habermas, J.(1997). *Vom Sinnlichen Eindruck zum Symbolischen Ausdruck*, 홍윤기
역(2004). 『의사소통의 철학』, 민음사.
- Marsick, V., Bitterman, J. & Van der veen, R.(2000). *From the Learning Organization
to Learning Communities toward a Learning Society*, Ohio: The Ohio State
University.
- Rifkin, J.(1994). *The End of Work*, New York: Putnam.
- Wang, H.(2003). "Lifelong Learning in Information Age", unpublished paper.

abstract

A new paradigm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a theory of the comprehensive learning society -

Jang-ho Kim

In today's highly networked society, a new learning environment is created at the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societal levels and this demands us to re-focus on the concept of the learning society. A 'comprehensive learning society' upholds the existing notion of the learning society but also makes a conceptual effort at overcoming its limitations.

The new socio-economic paradigm is characterized by de-industrialization, informatization, flexible production system, knowledge-based economy, networked organization, and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paradigm demands a new paradigm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new paradigm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one that is demand-driven and is characterized by cooperative governance. It should also be epitomized by decentralization, localization, competency-based certification system, workplace learning,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and lifelong learning, learner-centered learning method, and fostering of knowledge-labor and innovative capabilities. To realize a comprehensive learning society, multi-dimensional strategies need to be designed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at the corporate level as well as various organizational and governmental levels.

Keyword: Learning society, Comprehensive learning societ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ocio-economic paradigm